

# 전주문화재단, 웹진 '온전' 창간

국내의 문화정책 방향 · 이슈 등 소개... 기획특집 좌담 · 인터뷰 · 에세이 · 리뷰 구성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동시대 문화예술 현상을 파악하고, 동향을 읽어내며, 변화에 동행하는 웹진 '온전'을 창간했다고 23일 밝혔다. 8월 창간호 주제는 '활성화'다.

'온전'은 '온고을 전주', 'on JEONJU', 'JEONJU Online'의 의미를 지닌다. 바르고 드넓은 정보의 장을 지향하며 그 자체로서의 본질을 보고자 하는 웹진 '온전'의 정체성이 오롯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웹진 '온전'은 기획특집 좌담, 인터뷰, 에세이, 비평·리뷰 총 네 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기획특집 좌담은 동시대 핫한 이슈를 가지고 분야별 예술가·기획자와 함께 담론의 장을 펼치는 코너다. 창간호의 기획특집 좌담 '우리가 얻은 것들 : 코로나19 이후 예술가와 예술계가 새롭게 획득한 조건과 기술은 무엇인가?'에서는 김소라(아트컴퍼니 두루 극작가), 김신우(독립 프로듀서), 김주원(배우, 삼일로창고극장 운영위원), 허대찬(미디어문화예술채널 앨리스온 편집장)이 코로나19 시대의 경험과 그것을 통한 제언을 나눈다.

다음으로 인터뷰는 기획특집 좌담에서 나온 키워드를 중심으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인물을 섬의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낸다. 창간호에서는 신기현(미디어 아티스트)과 김신영(전북대학교 과학학과 교수)의 '메타버스, NFT, 가상현실 속 예술'에 관한 면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에세이는 전주 문화예술의 지형과 생태계를 진지하게 고민하고자 1년 대주제를 설정해 연재 방식으로 진행한다. 올해 주제는 '전통이라는 오픈소스 - 서사의 공동체'로 정했다. 에세이를 통해 전주가 품고 있는 전통과 동시대를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은 동시대 문화예술 현상을 파악하고, 동향을 읽어내며, 변화에 동행하는 웹진 '온전'을 창간했다.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제처럼 안겨지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했다. 창간호에서는 이세승(안무가)의 '전통 무용에 제동을 건 댄스 브레이크'라는 글로 전통과 유희의 게임을 펼치는 젊은 예술가들의 작업을 조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리뷰 코너를 통해 전주의 예술공간을 소개한다. 이번 호에서는 전주 팔복동에 있는 '소금공방'을 찾아가 네 명의 작업자가 함께 운영하는 창작 공동체의 이야기를 전한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온전'은 국내외 문화정

책의 방향과 이슈들을 소개하고, 지역의 문화정책과 산업 전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소통하는 담론의 장이 될 것이다"며, "독자들이 그 안에서 깊은 통찰과 더 나은 실천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웹진 '온전' 구독을 희망하는 독자는 누구나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독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미래전략팀(070-7711-374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대학 최대 규모 문학상 공모

가람 이병기 청년 시문학상 · 최명희 청년 소설문학상 31일까지 접수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대학 최대 규모의 문학상인 '가람 이병기 청년 시문학상'과 '최명희 청년 소설문학상'(이하 문학상)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총 상금 800만원으로, 전북대신문방송사와 혼불기념사업회·최명희문학관에서 공동 주관하는 이번 문학상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부문 각각 시와 단편소설이며, 시는 시조 포함 세련 이상, 소설은 한 편 이상 제출해야 한다. 작품은 전북대신문사 편집국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당선작은 전북대신문 개고기념 특집호(2021년 10월 13일 자 예정)에 발표된다.

특히 전북대는 한국 문학사에 기념비적인 공로를 세운 '난초 시인' 가람 이병기 선생과, '혼불'의 최명희 작가를 추모하고 문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문학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 문학상의 모태는 1955년부터 운영돼 있던 '전북대신문 학생작품 현상모집'이며, 최명희 작가 역시 지난 1971년 '정육이'라는 작품으로 응모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 문학상은 한국 문단의 꾀직한 신예를 발굴하며 명실상부한 문학인 등용



문이 되고 있다. 권상혁·김보현·김학찬·손흥규·이갑수·전아리 소설가, 박성준·백상용·이혜미·조율(조윤희) 시인 등이 이 문학상 출신이다. 고등수 수상자들 역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공모전과 백일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공모에 관한 문의는 전북대신문방송사(063-270-3536)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순창군, 26일 음악극 '나포리 음악다방' 공연

순창군이 오는 26일 저녁 7시 30분 향토회관에서 음악극 '나포리 음악다방' 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하며 관람객은 마스크 미착용시 입장이 불가하다. 군은 전체 465석인 공연장 내 관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115석만 사용할 예정으로 관람객 입장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2021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 마련되는 이번 공연은 많은 세대를 아우르며 온 가족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창작 음악극이다. 서울 근현대의 실존장소인 '나포리 음악다방'을 배경으로 지역민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소통하는 이야기로



'달밭머리', '나 어떡해', '어쩌다 마주친 그대' 등 추억의 음악들이 오리지널 버전과 최근 리메이크 곡으로 함께 펼쳐져 세대 간 소통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공연 영상은 순창군 유튜브 채널인 '순창튜브'를 통해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관람 가능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 고창군, 두 번째 동리 신재효 자료총서 발간

박타령 · 적벽가 · 변강쇠가 3권

고창군 판소리박물관이 23일 두번째 동리 신재효 자료총서를 발간했다. 신재효 선생의 판소리 사설 10여종이 총정리 되면서 고창 판소리와 동리 신재효 연구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리 신재효 자료총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리 신재효 선생(1812~1884)의 판소리 사설, 가사, 고문서, 유적·유물, 전기역사자료 등을 집대성해 책으로 엮는 작업으로 영인본(원본을 사진으로 찍어서 복제한 책) 등 총 18권으로 계획돼 있으며 한국의 얼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수록될 예정이다.

이번 발간 자료는 고창군과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와 함께 작업했다.

동리 신재효 자료총서 중 2020년에 발간한 '춘향가', '심청가', '토벌가' 사설 영인본에 이어 '박타령', '적벽가', '변강쇠가' 3권을 발간했다.

두번째 자료총서인 영인본에는 동리 신재효 사설인 가람본, 신씨가장본, 성두본, 새터본, 고수본 등 10여종을 총망라해 원본을 영인하고 해제(현대어로 해설)해 출간했다.

특히 판소리 사설 이본(異本)에 대한 해제를 수록해 판소리 사설 이본간의 차이와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동리 신재효 자료총서 사업은 고창 판소리 연구 활성화와 동리 신재효 연구의 새장을 열

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 보성 등 타 지역과의 전승의 차별성과 고창의 역사적 특징을 결정화하는 사업이다.

또 전북 고창이 판소리 전승과 재창조의 수도임을 밝히는 문화적 기반을 조성해 역사적인 판소리의 발전과정을 생생히 기록하는 의미도 있다. 차후 수많은 판소리 연구의 자원이 되어 관련 연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고창군 판소리박물관은 발간한 판소리 여섯 바탕 사설영인본을 바탕으로 신재효 판소리사설 '필사(손글씨)' 체험, 신재효 판소리 사설 강독 등 판소리 사설 활용사업을 진행하여 판소리 대중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제2회 고창군 공예대전 공모

고창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사장 김부선)가 공예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고창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제2회 고창군 공예대전'을 개최하고 참가 공예품을 모집한다. 참가자격은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출품분야는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 6개 분야이다.

출품희망자는 고창군 생활문화센터(고창읍 판소리길 20, 1층)에서 25일부터 27일 18시까지 작품 접수가 가능하며 31일 심사를 거쳐 우수한 11개 작품을 선정해 소정의 재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시상식 및 전시회는 9월 17일 고창읍성 앞 광장에서 열린다. /고창=김영식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